【 2016.03.11(금) 강원일보 】

# 5,500억원 규모 공공공사 풀린다

## 국토부 소속 공기업 4곳 신규 발주

올해 국토교통부의 4개 공기업이 도내에서 신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5,5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신규 발주공사는 전국적으로 총 20조9,000억원이며 이 중 도내에서는 전체의 2.6%인 5,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공사는 △양양물치강선 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109억원) △양양물치강선 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268억원) △원주혁신도시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1,171억원) △원주 혁신도시 B-1블록 아파트 전기공사(158억원)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간 조경공사(110억원) △동홍천양양선 내린천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공사(118억원) △평창동계올림픽 나들목 개량 공사(156억원) △원주~강릉철도건설 관련 공사(1,644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존선 관련 공사(427억원) △중앙선 청량리~서원주 간 궤도개량공사(138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관련 공사(1,202억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의 출혈경쟁 및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점수와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의 점수를 합산해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위윤기자

철도공단,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마련

# 배치기술자 평가 강화… 매출액 비중은 완화

300억원 이상 대규모 철도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전면 시행된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배치기술자 평가는 종전보다 강화된 반면 매출액 비중은 완화됐고, 지역 및 중소건설사 참여를 위한 공동도급 배점은 조달청 등과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됐다.

## 공동수급체 심사 배점 높여… 본격 발주 채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조달청 심사기준 등을 기초로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K-water,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분야별 배점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1점(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했다.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일반공사와 고난이도공사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고난이도의 경우 단가심사(-4점) 대신 물량과 시공계획 평가(각 -2점)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반 토목과는 또 다른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공사수행능력 중 배치기술자 평가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이 강화한 배치기술자 배점은 일반 및 고난이도 각 14점으로, 조달청(일반 10점, 고난이도 11점) 대비 크게 높게 책정됐다.

반면, 매출액 비중 평가배점 및 기준은 상당폭 완화했다.

이는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대한건설협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배점을 종전(시범사업) 대비 2배인 2점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기여도(0.3점)에 대한 차등폭도 확대했다.

한편, 공단은 본격적인 종심제 발주에 앞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모의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종심제 적용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 이달 '첫 테이프'
# 동대구~영천·원주~제천 등 잇따라 집행

## 올 신규사업 총 7건 7694억 규모

철도공단의 종심제 세부심사 기준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가 기다려왔던 대형 철도건설공사 발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종심제 방식으로 집행할 신규 대형공사는 모두 7건으로, 공사비 기준 총 7694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노선사업의 부재 속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해선과 중앙선 등 대규모 노반 건설사업이 대부분 착공에 들어가면서 발주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로, 공공시장 전반의 물량난이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철도 건설사업은 여전히 대형사 및 중견사들의 최우선 수주 대상이다.

올 신규 발주예정 공사를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가 1건, 궤도공사가 2건이며, 나머지 4건은 노반신설 등 토목(일부 건축 포함)공사다.

공단은 이 가운데 건축공사인 514억원 규모의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 신축 기타공사를 시작으로, 종심제 발주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이달 중순 도담~영천 7공구에 대한 모의 입찰 및 분석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이달 말에는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중에는 599억원 규모의 대구선 복선전철(동대구~영천) 궤도 부설공사를 종심제로 선보일 예정이며, 10월 발주예정인 원주~제천 복선전철(원주~운학) 궤도공사도 종심제로 집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노반건설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진접선 복선전철 2공구 노반 및 건축 기타공사를 종심제로 발주할 방침이다. 1193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앞서 지난 2014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됐다 반복유찰돼 기타공사로 전환된 것으로, 고난이도 공사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은 이 밖에 각각 1800억원 안팎의 장항선 개량 2단계 1·2공구와 1300억원 규모의 포승~평택 2공구 등 3건의 노반신설 공사는 모두 오는 11월 중 공고할 방침으로, 연말까지 업계의 치열한 수주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및 노하우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담은 종심제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 철도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